

D.Shostakovich Piano Quintet in g minor, Op. 57  
D.Shostakovich No.8 In C Minor Op.110a  
D.Shostakovich Romance Suite from "the Gadfly" Op.97 No.8  
D.Shostakovich Suite for Variety Orchestra Waltz No.2

# 쇼스타코비치의 삶과 음악

Dmitri Shostakovich  
Life and Music

⋮

예술인가?  
공산주의인가?

2022. 10. 30. 일요일 19:00

엘림아트센터 엘림아트홀

주최·주관 | BPO 부평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후원 | 인천광역시 인친광역시 IFIC 인천문화재단

티켓 | 전석 10,000원 관람 | 전체 관람가

문의 | 032-209-0788

예매 | 엔티켓 [www.enticket.com](http://www.enticket.com),

INTERPARK [www.interpark.com](http://www.interpark.com)

# DMITRI SHOS TAKO VICH

# BUPYEONG PHILHAMONIC

## GREETING

안녕하세요. 쇼스타코비치 삶과 음악이라는 내용의 음악회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게 기쁩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불어 넣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이 소련을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음악가입니다. 억압되고 작곡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힘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음악을 통해 끊임없이 자유를 외친 쇼스타코비치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쇼스타코비치 음악으로 우리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쇼스타코비치의 삶을 들여다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금 분투하며 자신의 색깔로 음악을 만든 그의 음악을 진정으로 느끼며 연주하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실내악의 편성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다양한 악기 (해금과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를 추가하여 편곡한 시도가 앞으로 클래식 음악이 더욱 발전하고 음악회를 보다 풍성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부평필하모닉 소개

부평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014년 1월에 창단하여 클래식, 팝, 영화음악, 탱고 음악, 국악퓨전 음악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전문예술 단체입니다. 2018년부터 인천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선정되어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하여 음악이 필요하고 나눌 수 있는 곳에 찾아가 연주를 하며 듣는 사람과 연주자들이 함께 행복한 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희노애락 클래식과 2020년에는 안녕! 비류야 라는 공연을 통해서 평소 오케스트라 연주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루하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클래식 음악을 재해석하여 모든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로 각계의 모든 계층이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부평필과 함께하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힐링 음악회는 음악의 힘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온라인 공연을 준비하여 공연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 종합 예술회관에서 주관하는 마음 더하기 응원가(加) “인천열전”에 참가하여 시민들과 의료진을 위로하기 위한 공연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부평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앞으로도 인천지역의 클래식 음악의 발전과 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프로코피예프와 함께 현대 소련을 대표하는 작곡가이며 20세기 음악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10대 시절부터 조숙한 음악성을 확립하여, 음악인생 내내 특유의 번뜩이는 신랄함과 풍자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작곡하였다. 20세기에 태어난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서방과 전혀 다른 음악 환경을 가진 공산주의 국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조성의 해체와 아방가르드가 대세였던 서유럽의 음악사조와는 상당히 다른 음악세계를 구축하였고, 그가 창작한 작품들은 당시의 정치상황과 개인사와 맞물려서 죽은지 4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해석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논란과 별도로 그의 음악은 다른 현대 작곡가들의 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많은 작품들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다.

베토벤 이후 교향곡 대작가들에게 일종의 골레와도 같았던 9번 교향곡의 저주를 깬 작곡가로도 유명하다. 그가 작곡한 15곡의 교향곡은 현재까지 교향곡 분야의 최후의 '대작'(마스터피스(masterpiece))으로 평가받는다.

쇼스타코비치는 1906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폴란드계 이민자 3세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피아노 연주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10대 때부터는 작곡도 시도했다.

레닌이 주도한 공산주의 혁명 직후인 1919년에 고향인 페트로그라드(개명된 지명) 음악원에 피아노와 작곡 전공으로 입학하여 1920년대 후반에는 꽤 전위적이고 진보적인 작곡가로 평가받았고 혁명과 노동절을 기념하는 단악장의 합창 불은 교향곡 두 곡(2번과 3번)이나 니콜라이 고골의 풍자 소설을 각색한 오페라 '굴' 등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보수적인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형식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것이 훗날 큰 재앙의 시발점이 되었다.

1934년에는 두 번째 오페라인 '트렌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의 음악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된다. 오페라는 초연 당시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며 해외에도 연주되었으나, 어느 날 소련 최고의 권위를 지닌 신문인 프라우다에 '음악이 아니라 혼돈'이라는 당의 비판 기사가 올라왔다. 비판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는지 들리는 이 비평은 작성자가 표시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공산당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오페라를 관람하던 스탈린이 공연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건 이후 나온 기사였기에, 스탈린이 직접 썼거나 적어도 깊게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있었다. 당시 스탈린의 대숙청이 벌어지던 시기로, 일반인은 물론 유력 정치인에서 저명한 문화계 인사까지 가리지 않고 별다른 이유없이 잡혀가 죽임을 당하던 시절이었다. 당장 쇼스타코비치가 자신의 친지들이나 후원자들이 비밀경찰에게 잡혀가고 있었고, 주위의 사람들이 쇼스타코비치와 접촉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패닉에 빠진 쇼스타코비치는 결국 자신이 쓴 파괴적인 구성의 교향곡 제4번의 초연을 포기한다.

쇼스타코비치는 어떻게든 자신이 변화하였다는 음악적 응답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고, 사활을 걸고 교향곡 제5번을 작곡한다. 이는 작곡가 본인의 고난을 표현하는 듯하면서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암시하는 팡파르로 귀결되는 베토벤적인 구성의 대작이었으며, 쇼스타코비치의 처지에 동정적이었던 사람들은 물론 당국자들에게도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물이었다. 트라비츠키의 지휘로 이루어진 초연은 길게야 40분 이상 이어진 대성공이었으며, 당국은 쇼스타코비치가 비판 끝에 '어느 정도 변화하였음'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게 되었다. 쇼스타코비치는 이렇게 첫 정치적 위기에서 목숨을 부지하였고, 모교인 레닌그라드 음악원의 작곡 교수로도 임용되었다. 이후에는 현악 4중주 등의 전통적인 실내악에도 손을 대기 시작한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러시아 본토에 전쟁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았으나, 1941년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쇼스타코비치가 거주하던 레닌그라드도 위협해지기 시작했다. 레닌그라드 공방전 초기에는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의 소방헬멧을 쓰고 있던 사진이 그때다. 소련군으로 징집되는 대신 병공감시인과 의용소방대로 활동할 적이다. 이때 교향곡 제7번을 작곡하였지만, 결국 10월에 포위망이 잠시 풀릴 때 쿠이비셰프에 피신했고, 거기서 교향곡 제9번을 초연했다. 레닌그라드 공방전 당시 포위된 도시의 시민들이 겪은 지옥 같은 고난을 생각해보면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아무튼 이 곡은 당국에 의해 '레닌그라드라는 제목이 붙었고, 소련 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에서도 수없이 방송되어 승리를 기원하는 음악의 상징이 되었다.

1945년에 소련이 승전한 뒤 발표된 교향곡 제 9번은 베토벤의 같은 번호 작품을 기대한 이들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고, 이내 스탈린의 심복이자 소련 문화계의 거두였던 안드레이 즈다노프의 비판(일명 "즈다노프수나")에서 비판 첫머리에 오히려서 두 번째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 이 때는 쇼스타코비치만이 아니라 그의 선후배와 동료들이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아람 하차투리안, 니콜라이 마스콥스키, 가브리엘 포프코 같은 작곡가들까지 연루되어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고, 쇼스타코비치는 음악원 교수직도 내주고 전쟁을 소재로 한 선전 영화의 음악을 붙이거나 '술의 노래' 같은 정권 영향력 작품에 주력하면서 후폭풍을 피해야 했다. 그러나 발표를 미루면서 몰래 실내악이나 교향곡 등도 창작하고 있었고, 1953년에 스탈린이 죽은 직후 교향곡 제10번을 발표하면서 '9번 교향곡의 저주'를 깬다. "저승사자가 쇼스타코비치를 잡아가야 하는데 스탈린을 잡느라 못 잡아가다"고도 한다.

스탈린이 사망하고 오래지 않아서 이미 문화적으로 '해방'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쇼스타코비치에 대한 연주금지나 비판은 점점 해제되었고, 이 때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쇼스타코비치는 프랑스나 미국 등 서방 세계에 연주 여행을 다니고, 음반을 취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입당이 자의였는지 아니면 타의에 의한 강제 입당이었는지는 아직도 불명확한 상태. 입당 전후에 쓴 교향곡 두 곡(11번과 12번)도 1905년과 1917년의 혁명에 대한 부제를 붙였기에, '결국 쇼스타코비치는 소련 정권의 어용 작곡가가 되었다'는 비판이 서구에서도 일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악 4중주 제8번 같이 분명한 공포와 고통을 표현한 내면적인 작품도 만들었고, 소련 내에서는 공공연했었지만 공식 언급이 금지시되었던 반유대주의를 비판하는 교향곡 제13번 '바비 아르'를 작곡하는 등 반골 정신을 드러내기도 했다.[20] 이렇게는쟁적인 창작 활동을 계속하는 와중에 쇼스타코비치는 점차 쇠약해졌고, 특히 오른손에 마비 증상이 오면서 피아노 연주와 악보 작성 등이 어려워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거기에 1966년에는 심장마비를 겪으며 생명의 위기를 넘겼다.

건강상태가 나빠짐에 따라 그의 작품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염세적인 분위기를 풍기게 되었는데, 말기의 교향곡인 14번은 죽음을 주제로 쓰여진 시를 가사로 하고 청년 시절에 도입했던 서구의 현대음악 기법을 응용하는 등 체제 도전적인 면모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작품으로 논란을 빚었다. 1970년대에는 폐렴에 심근경색까지 발병했고, 결국 1975년 모스크바의 병원에서 비올라 소나타를 마지막으로 완성하고 4일 뒤 세상을 떠났다. 많은 인사들의 추모 속에 유해는 노보데비치 수도원 묘지에 안장되었다.

# PROGRAM

## 1 소련의 스타 작곡가 트미트리 쇼스타코비치

**D.Shostakovich**

**쇼스타코비치**

I . Lento  
II . Adagio  
III . Allegretto

Piano Quintet in g minor, Op. 57

피아노 5중주 G단조 Op.57

## 2 예술인가? 공산주의인가?

**D.Shostakovich**

**쇼스타코비치**

I . Allegretto  
II . Allegretto scherzando  
III . Tampo di valse  
IV . Allegretto

Waltzes for flute clarinet & piano

플룻,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왈츠

## 3 봉쇄된 레닌그라드 속의 그의 음악

**D.Shostakovich**

**쇼스타코비치**

III. Allegro non troppo

String Quartet No.3 in F major, Op.73

현악 4중주 3번 3악장

## INTERMISSION

## 4 금지된 그의 노래

**D.Shostakovich**

**쇼스타코비치**

I . Largo  
II . Allegro molto  
III . Allegretto  
IV . Largo  
V . Largo

No.8 In C Minor Op.110a

피아노 5중주 G단조 Op.57

## 5 해금으로 듣는 영화 음악 속의 쇼스타코비치

**D.Shostakovich**

**쇼스타코비치**

Allegro moderato

Romance Suite from "the Gadfly" Op.97 No.8

로망스

해금-김은진

## 6 영화 음악 속의 쇼스타코비치

**D.Shostakovich**

**쇼스타코비치**

Suite for Variety Orchestra Waltz No.2

다양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 PROGRAM NOTE

##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소련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 D. Shostakovich Piano Quintet in g minor, Op. 57

1940년 작곡

《피아노 5중주 사단조 작품번호 57》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가장 유명한 실내악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피아노 5중주가 그렇듯이 피아노와 현악 사중주(2개의 바이올린, 비올라 및 첼로)로 구성된 곡이다. 쇼스타코비치는 1940년 여름에 이 작품의 작곡을 시작하여 1940년 9월 14일에 완성했다. 그의 현악 4중주 곡 대부분이 그렇듯이 베토벤 사중주단(Beethoven Quartet)을 위해 작곡되었고 1940년 11월 23일 베토벤 중주단이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초연했다. 작곡가인 쇼스타코비치 자신이 피아노 연주를 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 곡은 1941년 스탈린상(소련 국가상)을 수상했다.

### D. Shostakovich String Quartet No.3 in F major, Op.73

1946년작곡

이 곡은 1943년에 작곡한 8번의 교향곡을 현악4중주로 바꾼 것이다. 현악 4중주 3번 곡은 청춘의 기쁨에서 불안과 고난을 거쳐 조용한 성숙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곡은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6년에 작곡되었고, 초연은 1946년 12월16일 모스크바 음악원 소강당 작곡 연주회에서 베토벤 현악 4중주단에 의해 이뤄졌다. 3악장은 교향곡 8번의 3악장과 흡사한 구상의 파파와 죽음으로 그린 격한 악장이다. 박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분조에 한 1주제가 1바이올린으로 거칠게 표현하고 있고 1주제에 음형이 더해지며 진행되다가 비올라의 풀카롱으로 2주제가 등장한다. 악장 첫머리 부분이 더욱 격하게 연주되며 고조되어 악장을 종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 D. Shostakovich Romance Suite from "the Gadfly" Op.97 No.8

1955년 작곡

흐르는 곡 로망스는 쇼스타코비치가 원래 "The Gadfly" 라는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작곡된 곡으로 쇼스타코비치 자신의 고뇌와 번민을 대변하듯 비애와 아름다움이 함께 공존하는 우려한 선율의 흐름이 매우 인상적인 곡이다. 이 곡은 처음 "The Gadfly" 가속에 붙어 괴롭히는 곤충" 라는 영화음악의 배경으로 작곡되었다. 이 영화의 제목은 함브르크 통치하에 있던 이탈리아의 한 혁명가를 비유 한 것인데, 당시 소비에트의 공산체제에서 반항하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간절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많은 영화음악 가운데 쇼스타코비치가 가장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8번의 로망스는 애절한 슬픔 속에 흐르는 비장한 느낌을 떠올리게 한다.

### D. Shostakovich Suite for Variety Orchestra Waltz No.2

1956년 이후

지금까지 <재즈 모음곡 2번>으로 알려진 음악은 무엇일까? 1956년 이후에 작곡한 것으로 추측되는 <다양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Suite for Variety Orchestra)이다. 이 음악은 1988년에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런던 바비컨 센터에서 연주하며 서방세계에 처음 알려졌는데 이 당시 <재즈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2번>으로 소개되면서부터 <재즈 모음곡 2번>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몇몇 사람들이 모음곡 1번은 3개 곡 구성에 솔로 악기가 등장하는 소규모 밴드 음악인데 왜 모음곡 2번만 풀 오케스트라에 8개 곡의 모음으로 구성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이는 지금까지 이 음악<다양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이 잘못된 소기로 모음곡 2번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가설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렇지만 그동안 알고 있던 <재즈 모음곡 2번>이 원작 <재즈 모음곡 2번>이 아니라고 밝혀졌음에도 이 작품은 여전히 <재즈 모음곡 2번>이라는 명칭으로 소개되고 있고 연주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수가 담긴 왈츠

‘왈츠’는 <다양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2번>에 들어 있는 곡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쇼스타코비치는 이 곡을 통해 재즈와 왈츠의 매력을 한 작품 안에서 다 표현하려고 했지만, 막상 음악을 들어보면 왈츠라고 하기에는 조금 느리면서 어둡고, 재즈라고 하기에는 그 웅장함이 관현악에 가까운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즈라 하기에도 왈츠라 하기에도 조금 부족한 듯한 이러한 독특한 개성이 이 곡을 더욱 매력 있게 하는 요인인지도 모른다. 경쾌한 세 박자를 타고 흘러가는 이 곡의 왈츠풍의 선율은 슬프고 어둡다. 요한 스리라우스의 왈츠처럼 화려한 빈 품이 아니다. 역시 쇼스타코비치답다. 그는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인민에게 음악으로 봉사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아마도 태생적으로 모더니스트였던 것 같다. 내성적인 그는 줄담배를 즐겼고, 표정은 언제나 딱딱했다. 공개석상에서 웃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곤 달랑 한 장뿐인데 그것도 아주 희미한 웃음일 정도이다. 그의 음악은 무겁고 어두운데다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돈다. 그리고 행간에는 차가운 유머가 숨어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우수가 어린 사정적 주제 선율을 왈츠라는 흥겨운 춤곡 형식에 담아냄으로써 감추고자 했던 슬픔을 오히려 더욱 드러내주는 듯하다.

### D. Shostakovich No.8 In C Minor Op.110a

1960년 작곡

1960년에 작곡된 제8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비에트 당국의 요청으로 영국과 미국 연합군의 폭격으로 황폐화된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한 중 받은 충격으로 `파시즘과 전쟁의 회색조`를 생각하며라는 이름으로 작곡된 작품이다. 이 작품 안에서 그는 자전적인 요소를 넣었는데 이러한 동독 폐하의 참상을 보고 구소련을 위한 곡을 쓰라는 명령을 내린 권력자들에 대한 역설적인 왜곡을 이 곡 속에 집어넣었다. 작곡 당시 그는 친구 이작 글리코민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작품의 본질을 이렇게 언급하였다. "이 작품은 이름의 이니셜인 DSCH(Dmitri Shostakovich)를 주제로 사용하였으며 이미 작곡된 교향곡 제1, 5, 10번, 피아노삼중주곡, 첼로현주곡 제1번 및 오페라 <크렌스키의 매복> 부인' 등에 등장하는 혁명적인 노래인 '비탄한 속삭임'으로 괴롭힘을 당함'의 주제를 인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이 곡을 쓸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였다. 친구인 레프 레베넨스키는 쇼스타코비치가 당시 자신에 대한 정치적 압력에 의해 강요당하는 계획된 자살에 앞서 이 작품을 자신의 묘비명으로 써달라고 제언하였던 것을 회상하였다. 이 곡은 황폐화된 드레스덴을 빚듯이 과거 체험을 상기시킨 자서전적 작품으로 전 악장을 중단 없이 연주한다.

-제1악장 Largo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적 서명인 DSCH 주제로 시작하면서 이 주제는 계속 반복된다. 그의 교향곡 제1번을 인용하고 있다. 제1바이올린은 마치 형제자들의 곡을 묘사하고 있다. 자유를 뺏기고 억압받고 구속된 쇼스타코비치의 심정이 악장 내내 매우 어두운 분위기로 그리고 있다.

-제2악장 Allegro molto 이 악장은 전쟁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드레스덴에 가해진 폭격의 참화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매우 빠르며 DSCH 주제가 배경에 선율로 깔리면서 두드러진다.

-제3악장 Allegretto 이 악장의 빠른 템포는 죽음의 춤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즉, 죄수들이 그들이 곧 문히게 될 무덤 앞에서 왈츠를 추다가 곧 총격에 의해 쓰러져간다는 것이다. 어떤 평론가는 시민들이 술을 마시며 그들의 슬픔을 달래는 것이라고도 한다. 혹은 쇼스타코비치가 누릴 수 있었던 극히 짧은 행복한 순간들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설정도 있다. 왈츠 속삭임은 DSCH 주제를 근간으로 한다. 첼로 솔로는 울부짖으며 바이올린은 암시적인 섹스로 연주한다. 첼로현주곡 중 한 부분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 곡에서 바이올린이 그 부분을 연주한다.

-제4악장 Largo 쇼스타코비치는 이 악장에서 그를 체포하기 위해, 혹은 죽이기 위해 한밤중에 그의 집에 들이닥쳐 거칠게 문을 노크해대는 KGB 요원들을 네 개의 현악기가 3박자로 강력하게 통일하여 연주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폭발적 표현 중간 중간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상실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색선이 포함되어 있다. 교향곡 제10번과 혁명가요인 '비탄한 속삭임'으로 괴롭힘 당하며가 인용되고 있다.

-제5악장 Largo 마지막 악장에서 DSCH 주제는 두 개의 반음 위의 푸가토로 분리된다. 이 악장은 곡의 첫 번째 부분으로 순환되면서 마치 모든 것이 소진되어 지친 듯 호흡이 긴 음표로 마무리된다.

# MEMBER PROFILE



## 바이올린 백승록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졸업
-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 바로크 바이올린 전공 학사, 석사 졸업
- Il Gardelino, Bach Collegium Japan, Musica Poetica, Collegium Musicum Den Haag, Sigiswald Kuijken, Frans Brüggen, Philippe Herreweghe, Ryo Terakado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연주활동.
- 현악 전문잡지 스트라데에 '역사주의 연주의 이해' 연재

현) Confrerie Musica 리더,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악장, 바흐 솔리스트 서울, 바흐 콜레기움 서울 단원



## 바이올린 김아진

- 성신여자 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린 전공
- 러시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홀 성신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 장한나의 애플루트 클래식 III 오케스트라 수료
- 파르렛 유벤타스 1 바이올린 연주 및 다수 실내악 연주
- 금천 교향악단 바이올린 상임 단원 역임
- 그레이스 챔버 앙상블 수석 바이올린
- 부평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파트수석 연주자



## 바이올린 김하린

-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졸업
- Italy roma arena academya 오케스트라 지휘졸업
- Italy roma arena academya 합창 지휘졸업
- Italy firenze trillo 음악원 바이올린 연주자과정 diploma
- Italy firenze trillo 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자 과정 diploma
- 부평필하모닉청소년 오케스트라 부지휘자



## 비올라 김지성

- 경기예술고등학교 졸업
- 가천대학교 (구 경원대학교) 관현악과 졸업
- 독일 만하임 국립음악대학원 솔로 석사 및 오케스트라 디플로마과정 졸업
- 독일 에어푸르트 극장 객원단원 역임
- 독일 오스나브뤼크 심포니커 단원(Praktikum) 역임
-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수석단원 역임
- 독일 하이델베르크 페스티벌 초청연주 (솔로, 실내악)
- 이탈리아 Amigdala 국제콩쿨 입상 (현악전체 2등)
- 이탈리아 로마 Accademia di musica 오케스트라 지휘 디플로마 수여
- 베를린 필하모니 홀 및 유명 다수 홀 솔로, 실내악 연주

현) 송파구립교향악단 수석  
인천예고, 경기예고 영재음악원, 서울 중랑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출강



## 첼로 김지연

- 가천대학교 (구 경원대학교) 관현악과 졸업 (첼로 전공)
- 가천대학교 (구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첼로 전공)
- 가천대학교 (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음악 교육전공)
- Italy A.I.ART 졸업 (오케스트라 지휘 Diploma)
- 韓日 국제교류 자선 콘서트(교토, 고베), 이탈리아 초청 연주회 (Piancastagnaio, Roma) 지휘
- 인천YMCA 오케스트라 단장 및 지휘자
- 부평필하모닉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 및 지휘자
- 부평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 베이스 유지혜

- 한국 예술종합학교 영재원 교육 수료
- 연세대 음악대학 졸업 (콘트라 베이스)
- 연세대 음악대학 석사(콘트라 베이스)
- 이탈리아 피렌체 Scuola di Music LI TRILLO 디플로마

# MEMBER PROFILE



## 플루트 구태완

- 서울기독대, 서울시립대 콩쿨 금상, 상명대학교 콩쿨 장려상
- 프랑스 Musicalta 수료
- 프리민 오케스트라, 광명심포니, 부평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 부평필하모닉 청소년오케스트라 수석 지도교사



## 오보에 이경근

- 협성대학교 졸업
- 전) 평택시향, 시흥필하모닉, 용인필하모닉 단원
- 로망스 오케스트라 총무, 소리얼 오케스트라 악보계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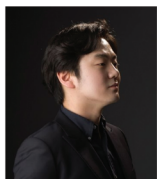
현) 뉴트리 팝스 수석, 스칼라 오페라 오케스트라 수석  
2001 서울 관악제 협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양주 윈드 협연, 분당 요한성당 초청연주



## 클라리넷 안준만

- 단국대학교 기악과 졸업
- 프랑스 EVRY 국립음악원 졸업
- 프랑스 Aubervilliers 국립음악원 클라리넷 최고점수 졸업
- 프랑스 Aulnaysous-bois 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역임

현) 삼육대, 광운대, 해병대 사령부 출강  
아르누보 클라리넷 앙상블 단원  
남양주 꿈의 오케스트라 감독



## 피아노 방휘

- 한양대학교 대학원 피아노 전공 석사 졸업
- Seoul International University 박사(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ITALIA Norma Accademia IL Musicale SEMINARIO 졸업 (반주 전공,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
- 서울대학교 음악교육 전문 지도자 과정 수료
- New Philharmonic, DELART Orchestra
- 경기 광주시 오케스트라, 인천 부평 오케스트라 그 외 다수 오케스트라 협연
- Seoul International University 객원교수



## 해금 김은진

- 국립 국악고, 이대 음악대학 졸업
- 국악 앙상블 S.A.L.T단원
- 국악 선교단 woodnote단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 사회자 김영호

-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졸업
-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 예술경영석사Accademia A.I.D.M 성악과 졸업(Italia Roma)
- Accademia ARENA 오페라과 졸업(Italia Roma)
- Accademia ARENA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Italia Roma)
- Santa cecilia 국립 음악원 수료(Italia Roma)
- Licinio Refice 국립 음악원 졸업(Italia Frosinone)

*BPO*

**부평필하모닉 오케스트라**

BUPYEONG PHILHARMONIC ORCHESTRA